



美에만 物質特許소급 日·EC 반발 GATT 精神에 위반... 國際的 紛爭조짐 보여

政府가 올 7月부터 美國측에 만 인정해 주기로 한 物質特許의 소급효문제를 놓고 EC(歐共體)와 日本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우리나라를 방문한 조셉 로브 EC외무차관보와 日本의 구로다 아키오(黑田明雄) 特許廳長官등 관계자들은 소급효적용이 부당하다고 政府當局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로브 차관보는 「美企業에만 소급효를 인정하는 韓·美 협정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정신에 위반된다」며 EC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C위원회는 소급효의 부당성을 GATT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뉴라운드(다각적 무역교섭)의 知的所有權 보호문제를 논의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C국가들은 美國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美 현지법인을 통해 우리나라에 特許를 出願하는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日本측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 온 구로다 아키오 長

官과 辨理士등 관계자들을 통해 美國과 마찬가지로 日本에도 소급효를 인정해 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측에만 인정키로한 소급

효문제의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工業所有權에 관한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의 「내외국인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美, 知的所有權보호 強化 국제경쟁력강화 作業班서 정책 마련

美國정부는 첨단산업정보등 知的所有權을 보다 강력하게 保護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外紙에 따르면 美商務省財務省 USTR(美무역대표부) 등으로 구성된 國際競爭力強化作業班의 知的所有權분과위는 知的所有權의 보호를 強化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최근 경제정책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美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知的所有權保護조치를 포함,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법안을 금년 1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된 知的所有權保護法은 ▲情報公開法の 적용을 받는 기업기밀의 범위확대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情報公開범위축소 ▲NASA(美항공우주국)등 研究機關으로부터 외국인의 첨단정보입수규제 ▲特許權의 분쟁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침해기업의 재판비부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西獨 改正 實用新案法 新年 1月1일부터 施行

西獨 特許廳은 지난해 公示한 改正된 實用新案法을 新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고 최근 發表하였다.

改正된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보호대상에 電氣·流體등의 回路를 포함. 단, 物品과 결부되어야 請求의 범위에 記載할 필요가 있다.

▲國內優先權의 適用

▲保護期間을 現行의 6年에서 8年으로 延長.

▲間接侵害의 導入.

▲分割出願의 導入.

▲特許出願에서의 變更出願制度의 導入.

▲出願人의 希望에 따라 新規性調査의 導入. (○)